



## 안산출입국 소식

3월 21일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문한)로 확대 개편된다. 관할지역은 현행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에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까지 확대되고, 업무는 기존 업무에 국적 및 이민통합 외국인조사 업무까지 시행하게 된다. (상세내용 2면 참조)

## 한중삼강포럼 특집

한중수교30년  
회고와 미래전망

## 기획연재 인터뷰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2

- [1] 수원중국동포협회 노순자
- [2] 우즈베키스탄 모임 M. 파르훅드
- [3] 베트남 결혼이주 1세대 원옥금

08-09p

## [법무부 공지사항]

-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별 업무지침 안내 02p

## [고충상담]

- 외국인 건강보험제관련
- 음주운전 관련

[도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흐름도 07p

## 법무부, 동포정책팀 본격 가동

## 13년만에 '외국적동포과' 부활할까?

법무부가 동포정책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8일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한중사랑교회(담임목사 서영희)에서 중국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국내 체류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포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청취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정책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 등 체류문

제를 해결하고 방문취업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법무부는 2005년경 외국적동포과를 신설, 동포체류정책의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했지만 아쉽게도 2009년 정부가 바뀌면서 폐지된 바 있다. 그후 13년만에 법무부가 동포정책팀을 가동했다는 소식은 외국적동포과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갖게 한다

2005년 외국적동포과 설립 당

시 국내체류동포는 20여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00만명에 이른다. 인구면에서도 동포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제정 100만인서명 동포시민연대는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제주한라대 김도균 교수는 "재외동포기본법 없이도 현

행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국내 체류 동포현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무부내 '팀' 단위는 자체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하지만 '과'나 '국' 단위의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대통령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 과연 '외국적동포과' 부활이 이루어질까 하는 점도 관심을 갖게 한다. /김용필 기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목소리는 왜?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제정·수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재외동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창하고 나왔다.



△지난 2월 16일 오후 2시 김경협 의원실 협조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사)너머, 사)동북아평화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재외동포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이 공동주관하며 세계한인평화연대 등 80개 동포시민사회, 언론단체가 참여해 세계로 향한 대한민국의 플랫폼을 열어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 법무법인YK 중국인법률지원센터

## 주요 분야

- 출입국 관련 / 出入境相关  
영주권 및 국적 취득·강제퇴거·출국명령·체류기간연장 불허 등 / (取得永久居住权及国籍, 强制驱逐, 禁止出境命令, 延长滞留时间等)
- 행정 소송 / 行政诉讼  
임금채불·징정절차·부당해고·구제신청 / (拖欠工资, 陈情程序, 不当解雇, 申请救济)
- 형사사건 / 刑事案件  
성범죄·보이스피싱·재산범죄·마약·교통사고 / (性犯罪, 电话诈骗, 财产犯罪, 毒品, 交通事故)
- 민가사 / 民家事  
협의·재판이혼·양육권분쟁·재산상속·가정폭력 피해지원 등 / (协议, 审判离婚, 养育人权纷争, 财产继承, 家庭暴力受害支援等)



X 법무법인YK

24시간 법률상담 02-537-4701 | 010-5167-284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6층 법무법인YK (교대역 2호선, 3호선 6번 출구)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을 추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이유는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

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주요내용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제31조의2)로,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서울교육청, 외국인 유아도 유치원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외국 국적의 만 3~5살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마찬가지로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18.7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할 때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

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다만,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은 직접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월 28만 1,000원이었다.

이번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이 외국 국적 유아에겐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업무지침 안내 -주요내용 중심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2년 1월 21일 공지한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안내 중 외국국적동포(C-3-8, H-2, F-4, F-5)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 책이다. 주요내용만 발췌해 안내한다. 옆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방송으로 볼수 있다.



### ■ 동포방문(C-3-8) 자격 사증발급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 서류 확인사항

(대상) 14세 이상  
(범위) 국적국과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제3국  
(처리기준)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 선고일러 5년간 사증발급 불허, 기타 범죄 금고 이상 형 받은 자 3년간 사증 불허

###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부여 관련

(대상)18세 이상  
(사증발급) - 한국국적의 친인척이 있는 경우  
 •2촌 이내 혈족,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비자 발급  
 •3촌~8촌 혈족, 3촌~4촌 인척 초청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 무연고 동포  
 • 2020년 이전 C-3-8 비자 발급 소지자 2022년 방문취업 비자 신청 가능  
(공통제출서류) 한국어능력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 확인  
(취업활동시 주의사항) 취업개시신고 및 근무처변경신고는 15일 내 해야...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 위반시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 체류불허 및 출국 조치  
 •초범 법칙금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간 법칙금 합산액 7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법칙금 처분을 받을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 ■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에 대해서

(공통제출서류)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취업활동 범위) 법무부 취업활동 제한업종 고시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자, 최근 3년 내 700만원 이상 벌금형(합산액)을 받은 자, 최근 3년 내 출입국 위반으로 700만원 이상 법칙금(합산액)을 받은 자  
 \*해외범죄경력상에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는 선고일로 7년간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불허하고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제한

### ■ 영주자격(F-5) 자격 부여 관련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소득금액 증빙서류, 사업자 및 신청인 서약서  
 \*연간소득 비교기준: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주택, 토지 공시지가, 임대차 보증금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F-4 2년 이상 자격소지자 중,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H-2자격에서 F-5자격 변경)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근무처 변경없이 4년 이상 계속 근무자(F-4 변경 포함), 2천만원 이상 자산 보유(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합산액)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2022년 3월 21일부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할구역 확대

안산시, 시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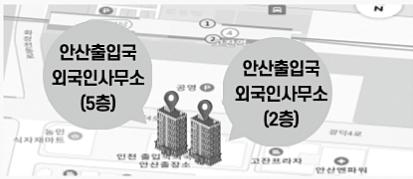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서울) (수원) (서울남부)

### 추가되는 업무

기존 업무

국적 및 이민 통합,  
외국인 조사업무 등

### 장소



- (체류 업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부일프라자 2층
- (그 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사리수산업빌딩 5층

### ※ 참고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 13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알림

2022년 3월 21일부터 안양시(서울), 군포시(수원), 광명시(남부)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구역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체류지 외국인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예약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의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관할구역 변경(2022년 3월 21일부터) ●

변경 전	변경 후
안양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군포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광명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월 21일 서울구로구 남구로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사진 좌에서 우로)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김영화 관장,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남승우 이사장, 남구로시장상인회 이시술 회장이 협약식을 맺었다.

## “장바구니로 장 보면 종량제 봉투 드립니다”

구로구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남구로시장상인회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캠페인 '일회용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2년 서울사회복지공동금회 기획사업(필환경도시만들기)에 선정되어 「필(feel)꽃힌 필(必)환경 구로」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친환경 캠페이너 양성 및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캠페인, 친환경 마을 만들기 구성된다.

이 중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월 21일(금)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남구로시장 상인회와 '구로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첫째, 상점과 소비자

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재(장바구니 및 에코백 등)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둘째,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게를 발굴함으로써 구로구에 친환경 소비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남구로 시장에서 장바구니로 장을 본 주민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 10개를 모으면 종량제 봉투 3개를 주는 '일회용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바구니 무인 대여함 제작', '일회용 없는 날 캠페인', '친환경 소비문화 만들기 캠페

인', 구로구 최초 '제로웨이스트 샵' 구축을 추진한다. 남구로시장 상인회에서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가게 30곳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각종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장바구니 40개와 종량제 봉투 5,000장을,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천가게 인증 앞치마 100개를 남구로시장 상인회에 전달하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남승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구로구에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필 기자

### 동포세계 알림

## 최상의 근로조건 간병인 모집안내

동포세계에서 특별한 일을 추진합니다. 간병일을 하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간병인으로 일 하는 분들 중에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거나, 또 쉬고 싶은 날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1인실 간병으로 1대1로 돌보는 일로 간병인 관리 전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월급도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 20일 이상 일하면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4대보험까지 가입되어,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수당도 받게 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일근무마다 1일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도 받게 됩니다.

방문취업, 재외동포체류자격자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체류자이면 되고요, 나이는 신분증상 2022년 기준 1957년 이후 출생자(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간병인에 관심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모집 관련 문의처

동포세계: 02-863-2589,  
010-4036-2589  
카카오톡(아이디 ekw2011)



한중삼강포럼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시민사회분야-이상부 (사)한중사랑 대표

“  
한국사회의  
냉대가 더  
시리다  
”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반중정서가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피해자인 우리 동포 뿐 아니라 동포를 사랑하고 위하는 한국인이 침묵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한중사랑은 2000년부터 중국동포와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해온 한중사랑교회(담임 목사 서영희)에서 발족된 비영리단체이다. 이상부 대표는 금융전문가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교회 장로로 물심양면으로 중국동포 사역을 후원하며 줄곧 함께 해왔다. 누구보다도 한국에 온 중국동포들의 삶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지원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조선족 동포를 중심으로 회고를 하고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말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방송 등을 보면 반중정서를 갖고 있는 일부 한국인들의 혐중(嫌中)감정은 고스란히 조선족 동포들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부 대표는 “오늘 수교 30주년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난 20여년을 되돌아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며칠 설쳤다.”면서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조선족 동포에 대한 남다른 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감회일까?

이상부 대표는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중국동포들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한국에 오기 위해 1,000만원 정도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와서는 얼마되지 않아 불법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시절들, 생존을 위해 모든 것

을 희생하며 지내야 했던 시기였다. 먼저 빛을 갚기 위해 몇 년을 휴식없이 일해야 했고 죽어라 일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지만 불법단속의 공포, 임금 체불, 산재, 불안한 주거지, 육신의 질병, 깨어져가는 가정...

방문취업제 시행 전 참혹했던 동포들의 한국생활을 회고한 이상부 대표는 “거기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워했던 한국사회의 냉대는 우리의 가슴을 더 시리게 하였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후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선족 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삼강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거론된 내용이 한중 양국민 간의 혐오와 반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이다.

어찌 보면 중국동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아닐까?

이상부 대표는 “한국인의 반중정서가 중국동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결국은 우리(중국동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인이 동맹으로 나아가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기대해 본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한중사랑은 동포지원단체로서 “우리 동포들과 그 자녀들이 같은 민족으로 아니 자랑스런 개척자, 독립운동가의 후예로서 인식되며 대우받는 그 시대를 기대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이상부 대표는 발표를 마쳤다.



2022년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박재석, 공동대회 장경률)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개발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30년의 회고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박재석 한중삼강포럼 상임대표(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 원장) 진행으로 장경률 한중삼강포럼 공동대표(연변일보 논설위원)가 개회사를 하고,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 발표가 15분씩 이루어졌다.

△경제분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사회분야: 조남철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문학 박사), △정치분야: 박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정치학 박사), △언론

분야: 이동렬 동북아신문 대표, △문학분야: 김경애 재한동포문인협회 회장, △학술분야: 정인갑 한중삼강포럼 고문(전 청화대 교수), △시민사회분야: 이상부 (사)한중사랑 대표, △교육분야: 이남철 파라과이 교육부 자문관(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차세대분야: 김용필 EKW 동포세계신문 대표

이번 포럼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이때, 한국사회와 중국동포 중심으로 회고해 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나왔는지 각 분야별 발표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 ○ 개회사: 장경률 공동대표

중국과 한국이 1992년 수교를 맺어서 30년, 공자의 30이립설처럼 중한관계도 지난 30년간의 파란만장한 세파속에서도 지속적발전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해말 서울에서 펼쳐진 중한삼강포럼 학술세미나는 그 주제가 <<근현대 한중 선린우호 관계사의 고찰과 미래전망>>이었다. 포럼에 참가한 교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중국과 한국은 고

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만 수천년간 가장 가까운 이웃, 거의 같거나 비슷한 역사적 단계를 거치면서 영육을 함께 한 이웃이다.”, “오늘날 중한수교 30주년 맞는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와 협력은 외교사상 기적이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중국과 한국은 수교 30주년간 이룩한 성취에 토대하여 가일층 심화된 중한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공동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사회분야: 조남철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문학 박사)

“한중 관계의 지난 30년이 확장과 발전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양국은 조정과 모색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민이 상대국에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도 30돌을 맞이하는 양국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사회분야에서 한중관계를 짚어본 조남철 전 총장의 결론이다. 특별히 주목해

서 본 것은 한중 양국민 사이에 불거진 혐중(嫌中), 혐한(嫌韓) 현상이다.

“한중관계를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두는 것)로 표현했다면 수교 30주년에 즈음해 이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협력과 공존을 꾀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 필요해 보인다”

### ○ 언론분야: 이동렬 동북아신문 대표

이동렬 동북아신문 대표는 “한중간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자못 중요하다”고 밝히고, 한중수교 이전, 이후 시대를 구분해 언론

분야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 체류 조선족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선족을 주 대상으로 한 언론매체 증가도 주목된다.

### ○ 학술분야: 정인갑 한중삼강포럼 고문(전 청화대 교수)

30년간 한중간의 학술포럼은 이렇듯 다양하지만 한중 양국국민간의 화합과 단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역사문화에 관해서는 일보의 진척도 없는 것이 큰 유감이다. 이를테면 발해국의 역사 귀속문제, 동북공정과 고구려문제, 강릉단오제와 한중무형문화유산문제 등

이 그것이다.”

위 글은 한중학술분야를 발표한 정인갑 전 청화대 교수의 발표원고 결론 부분이다. 정 교수는 한중학자들이 양국민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역사, 문화 쟁론을 학술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오기도 했다.

### ○ 교육분야: 이남철 파라과이 교육부 자문관(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중국동포인 조선족 유학생들의 경우도 대체로 한국유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편견과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남철 교수는 “향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교육당국은 유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꼼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제분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중국경제금융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전병서 소장은 “한중관계 30년은 동반자였지만 미래 30년은 경쟁자이다”라는 주제로 냉철하게 발표했다. 경제분야만큼은 분명 그럴 것이라는 확신 섞인 발언이었다. 그런데 최근 악재가 생겼다. 한국에서 혐중(嫌中), 반중(反中) 정서가 커진 만큼 중국에서도 혐한(嫌韓) 반한(反韓) 정서도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앞으로 30년, 위기와 기회를 가질 것이다. TV, 가전제품 등 제조업 분야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회를 만들려면 4차 산업 미국 스타일 비즈니스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술력과 금융분야이다. 재중동포, 한국의 차세대들에게 이 분야를 공부하게 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중관계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 정치분야: 박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정치학 박사)

첫째, ‘한중수교 과정과 역사적 의의’로 1992년 한중수교 전 ‘적대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과정을, 둘째 ‘한중수교가 한반도 및 한민족에 미친 영향’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중관계와 한국사회와 조선족 동포와의 관계변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당면 과제들’로 경제발전으로

달라진 중국, 사드배치로 표출된 한중 갈등, 그 후 일반 국민 간의 갈등으로 커져가는 현상,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대중들은 상대를 경원하기 보다 이해하며 힘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가려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 ○ 문학분야: 김경애 재한동포문인협회 회장

“재한조선족문학이란 특별한 케이스의 출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재한동포문인협회 김경애 회장이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한중문학교류를 정리하면서 서두에 밝힌 대목이다. 한중문학교류의 주축은 조선족 문인들의 작품활동과 한국문인들과의 교류가 아

닌가 생각된다.

이에 김경애 회장은 중국 조선족 문인들의 한국에서의 활동, 한국문인들의 중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재한조선족문학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였다.

### ○ 시민사회분야: 이상부 (사)한중사랑 대표

이상부 대표는 “한국인의 반중정서가 중국동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결국은 우리(중국동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인이 동맹으로 나아가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기대해 본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한중사랑은 동포지원단체로서 “우리 동포들과 그 자녀들이 같은 민족으로 아니 자랑스런 개척자, 독립운동가의 후예로서 인식되며 대우받는 그 시대를 기대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이상부 대표는 발표를 마쳤다.

### ○ 차세대분야: 김용필 EKW 동포세계신문 대표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차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젊은 세대들 간의 상호 혐오 비방 댓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되레 한중관계에 ‘적신폭’가

커진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이다.

김용필 대표는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재외동포정책이 문화전쟁의 빌미를 주고 있다. 그 결과 한중관계를 더 꼬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PARADISE CASINO

Win Your Day

PARADISE  
CASINO WALKERHILL

百乐达斯娱乐场华克山庄

CALL 1899 - 0700

优惠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택시비 제공: 영수증 지참시 최대 3만원 환급  
QR코드로 혜택 받기 扫描二维码享受优惠

问卷调查



추첨을 통해 워커힐호텔 숙박권을 드립니다.(10명)  
通过抽签赠送华克山庄酒店住宿卷.(10名)



# “국내 체류 동포의 어려움을 들어주세요”

최근 언론 보도도 있지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인구는 13만명 줄어 170만명이 되었고, 그 중 70만명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국적 취득자까지 포함하면 80만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나, 한국에 거주하나에 따라 조선족 내 정체성도 크게 달라질 정도로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모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국내 체류 동포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거주 동포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체류 동포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해외 거주, 동포들이 거주국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러다 보니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내 체류 동포가 100만명, 그 중 중국 동포는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동포들보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70만명, 국적 취득자까지 포함하면 80만명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내체류 동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런가?

첫째,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동포들의 불만이 계속 생기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 방

문취업제 비자발급,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전삼추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등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한다.

둘째, 재외동포 체류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취업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관련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터리 행정으로 수천만원의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 동포들의 사례도 파악해 왜 이런 일일 발생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의 인식개선이다.

최근 한중관계, 한복논란 등은 상호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조선족 동포들도 한복이라 말하고, 한복을 한국인 보다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복은 우리 민족이 고유 전통의상이다. 이것을 중국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신화교정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헌법은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화인)에 대해서도 보호한다는 보호조항이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 이를 참조로 우리도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관심을 갖고, 보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 “음주운전 적발자 많아요”

안산출입국, 중국동포에 각별히 주의홍보 부탁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처벌이 강화되어서, 운전면허증 취소는 물론, 벌금도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류자격을 박탈되거나 연장을 받지 못해 출국해야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번 걸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외국인, 외국적 동포들에게만 이렇게 강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인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공무원인 경우, 음주운전에 걸리면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아주 중하게 처벌한다는 것,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안산출입국사무소 관계자가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 음주운전과 관련, 어느 중국동포의 고충상담을 받게 되었다.

3년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가용으로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대리운전 기사하고 갈등

이 있었던 모양이다.

자가용이 차고에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해 길을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을 대리운전 기사가 해주면 아무 이상 없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차주인 중국동포가 직접 자기 차를 몰아 길을 비켜준 것이다. 차를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집에 다 도착한 상황이니 큰 문제가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경찰에 직접 단속되지 않고,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걸리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와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두해 두고,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관리에 이런 '허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터리 행정으로 수천만원의 징수금 고지서를 받는 중국동포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중국동포 이모씨(59세)는 2020년 3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만료된 상태였지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매월 자동이체 되었고, 2020년 10월경 병원측에서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확인되어 직장암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 2021년 9월 30일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12.3.까지 41,114,300원을 환급하라는 기탁징수금독촉장을 받게 되었다.

-사례#2.

2015년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중국동포 조모씨(70대)는 중국 출국 후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해오다가 2021년 2월 입국해 조경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조씨는 몸이 안좋아 5월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2021년 6월 22일 폐암진단을 받게 되었다. 당시 병원측에서 의료보험적용대상자라 하여 7월 12일 방사선과 항암치료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환급하라는 징수금납부고지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치료비는 총 2천4백만원이 되었다. 알고보니 회사측에서 7월말경 뒤늦게 퇴사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알려 직장가입보험료가 5월경부터 중단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못한 상황, 즉 의료보험 적용 공백기간에 병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 어느 중국동포의 사연 “이런 것 조심하세요”

가끔씩 식당을 찾는 식당손님의 부탁으로 현금 20만원을 받고, 누군가의 계좌로 20만원을 온라인 계좌이체를 해준 적이 있다.

다섯달도 더 지난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확실히 경찰서였다. 줄곧 식당일만 해왔기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갈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갑자기 조사받아야 한다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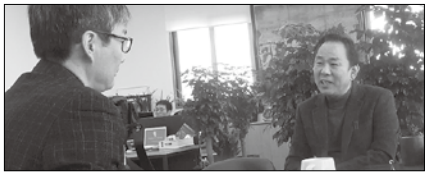
왜 그런가 물어보았다. 과거에 20만원을 온라인으로 이체해 준 통장계좌가 마약범죄와 연루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다. 가슴이 떨쩍 주저앉았다. 경찰서로 달려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다. 이렇게 식당 손님의 부탁이라도 잘 모르는 통장계좌에 돈을 대신 부쳐주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돈을 주고 받는 것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충상담안내

EKW 동포세계신문 뉴스제보 및 고충상담  
- 카카오톡 아이디 ekw2011  
- 이메일 ekw2011@naver.com



# “재외동포 취업제한 해결은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도균 제주한라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부 통계월보(2022.1월)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수는 77만6천여명, 그중 중국동포가 626,068명, 고려인동포는 약 8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479,042명, 방문취업(H-2) 121,309명, 영주자격(F-5) 114,548 순이다. 방문취업자수는 줄어든 반면 재외동포 체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체류 변화에 따라, 국내 체류 동포사회의 주요현안은 재외동포 체류자의 취업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이다.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일을 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되고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외동포 체류자의 취업제한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노무일로 지정된 업종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을 고시해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문취업에서 만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단순노무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제한 문제는 국내 체류 동포들의 고령화문제이기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동포세계(EKW) 유튜브방송 댓글창에는 “맘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동포들의 요청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기도 한다. 국내 체류 동포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동포시민 단체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법 보다 상위법을 만들어 동포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집행과 전담기구를 갖추자는 목소리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4일경 김도균 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 원장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유익한 법인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은 4가지 정도가 된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아예 외교부를 주무부서로 하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목적으로 한 법안도 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에 국내 체류 동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왜 그런지 김도균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해준다. 인터뷰의 또다른 주제는 재외동포기본법 없이도 국내 체류 동포 현안을 현행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도균 원장은 “100%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책당국의 의지, 부처간 협조 문제 때문이지 기본법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방문취업, 재외동포 동포차별, 취업제한은 재외동포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고시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국내 체류 동포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포정책팀을 조직해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과거 노무현정부때 방문취업제 시행을 앞두고 설립한 외국적동포과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내에서도 동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대한민국 재외동포 정책 흐름도<sup>1)</sup>

시기	연도	정책/제도/주요 사업	재외동포 정책 방향과 평가
이승만	1955년	(재일동포) 조총련 결성	1) 재일동포에 국한 -친일파/친북·공산주의 시각 2) (국회)재일동포 교육대책수립과 ‘재일교포국회읍서버’ 설치 등 건의 ... 묵살
	1957년	(북한) 재일동포 교육원조금 지원	
	1959년	(북한) 재일동포 복송사업	
박정희	1961년	일본내 한국문화교육센터 10여개 개설	1) 산업화 추진, 남북한 경쟁구도 2) 1970년대 재일동포의 한국방문과 교류가 본격화(한국 내 기업설립과 투자 시작) 일본 외 지역으로 재외동포교육지원 확대는 현재까지 유효 /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으로의 이민이 증가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1965년	6월 22일 한일수교	
	19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 추석성묘단 고향방문	
	1976년	해외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 설립	
전두환	1977년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 공포	1) 통일문제와 연계하고자 함. 2) 재외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명시하는 조항 등 헌법에 포함.
	1982년	재외동포 조국방문 남북한공동추진 제안	
노태우	1988년	(민단)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	1) 통일문제와 연계하고자 함. 2) 재외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명시하는 조항 등 헌법에 포함.
	1988년	서울올림픽/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sup>2)</sup>	
	1990년	한·소 수교	
김영삼 (문민정부)	1992년	한·중 수교	1) 정책결정과 시행 담당 정부기구 신설 2) ‘신교포정책’ : 거주국 적응 지원, 모국과의 정신적 유대 강화 제시
	1996년	2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5월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3월 재외동포재단법 제정	
김대중 (국민의정부)	1997년	<재외동포법> 제정 <sup>3)</sup>	거주국 내의 성장 지원,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지원, 재외동포 역량 활용
노무현 (참여정부)	2004년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회(6년만에 재개)	1) 3대 기본목표, 6개 주요방향 제시 <sup>4)</sup> : 거주국 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등 2) 정책 관련 제도와 기구가 활성화 3)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국 개편 *중국 소수민족 포함 신화교정책 확장
	2005년	러시아·CIS지역 재외동포지원협의회 설치	
	2006년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실시	
이명박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과 시행, 방문취업제도 보완,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추진과 국적법 개정안 시행, *조선족/고려인 재외동포(F-4) 제한적 확대부여
	2008년	10월 5일 제1회 세계한인의 날 8월 고려인동포 재정착지원사업	
박근혜	2009년	12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 확대	맞춤형 동포서비스 <sup>5)</sup> 재외동포사회의 성장 수준과 거주국의 환경 차이 등 반영, 동포사회 역할 확대,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범부처간 협력 강화 등 제시
	2010년	7월 재외동포 기술연수제 도입	
문재인 <sup>6)</sup>	2012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F-4부여	정책에 소외된 동포지원 <sup>7)</sup> 등 제시
	2014년	4월 C-3-8 비자발급	
	2015년	3월 H-2 배우자, 자녀 초청 거주	
문재인 <sup>6)</sup>	2018년	3월 H-2비자 18세 이상으로 조정	정책에 소외된 동포지원 <sup>7)</sup> 등 제시
	2021년	1월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	
	2022년	1월 동포자녀 F-4부여	

### 재외동포기본법과 정책전담기구 논의 관련

#### 1. 재외동포기본법 의미에 대해서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서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고 다른 법률의 모범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다.(국회사무처, 법이론과 실무, 2019) 재외동포기본법은 최소한 재외동포에 관한 제도와 정책의 골격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극복은 재외동포 정책 담당 기구 설치 운영이 포함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다.

#### 2.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논의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 처, 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재외동포처, 재외동포청 설치를 제안하는 안이 주로 나왔고,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특별법에 의한 ‘위원회’ 설치가 논의되어 왔다.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 논의는 2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의안으로 제출되었다. 최초로 제출된 재외동포기본법 발의안은 1997년 11월 5일 김원길 의원 안이다. 이 안은 ‘한민족청’ 설치를 제안하였고, 후에 김경협, 김성곤, 양창영 의원 등은 재외동포기본법 의안에 ‘재외동포청’ 설치를 제안하였다. 안민석, 전해철, 이인영, 제정구 의원 등은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둘 것인지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인지로도 나뉜다.

####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왜 아직도 안되고 있나?

부정적 입장 고수: 기본법은 혈통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소지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재외동포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경제활동 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 3. 현재 진행 상황

재외동포기본법 관련, 전해철, 안민석, 김석기 안 등 발의되어 있고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요요의 각주

- 1) 김용찬(대구카톨릭대) 2021. 5. 25 한국 재외동포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발제문 참조
- 2) 1988년 7월 7일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를 개방할 것과 해외 영주권 소지 재외동포의 북한방문 허용, 해외 거주 북한국적 동포와 공산권 거주 동포의 한국 방문 허용 등을 밝혔다,
- 3) 재외동포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재외동포 인재활용 등 새로운 내용 포함, IMF경제위기 극복 상황이 배경이 됨
- 4) 3대 기본목표: 거주국 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
- 5) 재외동포사회의 성장 수준과 거주국의 환경 차이 등 반영
- 6)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을 목표로 정체성 함양 및 역량강화 지원, 글로벌 민족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지원 등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
- 7) 해외한민족지원, 베트남 귀환 한국국적 자녀, 러시아·CIS무국적 고려인 등 지원 강화, 한민족네트워크 지원강화



## 중국동포 노순자의 한국생활 30년

## 조선족의 고달픈 인생살이와 희망 찾기



△ 1992년 한중수교 당시 한국에 온 중국동포 노순자의 한국생활 30년을 들려준다. 현재 수원외국인복지센터에서 중국어 상담사로 활동하며 수원중국동포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자율방범대 활동사진

노순자(盧順子, 58), 3월이 되면 한국생활 만 30년이 된다. 그러니까 한중수교(1992.8.24)가 이루어지기 5개월 전에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외가족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관내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살았다. 조선족이 많지 않아 마을에 있는 조선족소학교를 졸업한 후 초중과 고중은 한족학교를 다녔다. 고중 졸업 후엔 한족사회에 길들여져 가며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20대 중반의 꽃다운 시절을 보낼 무렵, 한 순간에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남동생이 한족 친구들과 어울리다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동생의 죽음 못지않게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행태가 소수민족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너무 힘들었어요. 동생은 이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인 한족 친구들은 아무런 일 없었던 듯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재개하는 거예요. 중국 당국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지요. 더 이상 중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하며 중국을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지요.”

결국 노순자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동생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인 셈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 역시 그녀에게는 힘들기 이를 데 없었다. 한국 방문 초기엔 외가의 도움을 받아 별 탈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고달픈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불법체류자로서의 삶은 그야말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늘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스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말속에는 당시의 아픔이 진하게 묻어 나왔다. 불법체류자로서의 고달픈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남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단다. 그리고 사내아이를 낳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스스로 호적을 말소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혼이 됐고 아들은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노순자의 한국생활에 한줄기 빛이 찾아든 것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조선족사회가 힘을 합해 추진한 조선족동포 국적

부여 운동이었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조선족정책에 변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진된 이 운동의 결과로 노순자는 2007년 12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한국 국민이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무국적자로 전락한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고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

노순자는 국적 취득 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덤덤하게 말했다.

“귀화해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죄책감과 불안감이 떨칠 수 있었지만 실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지요.”

왜 그랬을까? 노순자는 한국사회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무시가 국적 취득 후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됐지만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에 한국사회는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을 여전히 조선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며 이전과 다름없이 대했다는 것이다.

국적 취득 후 15여 년이 되는 지금은 좀 변했냐는 질문에 그녀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민이 됨으로써 그녀는 보다 당당하게 한국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적 취득 후 그녀는 중국을 떠난 지 16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고향마을을 찾았다. 그리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2년에 조교(朝僑,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국적자) 신분인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왔다.

노순자는 국적을 취득한 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한다. 그런 만큼 그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노순자씨는 국적 취득 후 어깨를 활짝 펴고 자신을 단련하는 데 적극적이다.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녀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졸업 자격증을 획득한 데 이어 심리상담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도 획득했다. 지금은 한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조선족 노인들을 돌보아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곽승지

## 우즈베크에서 온 청년 M. 파르훗존

## “한국에 다양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청년 무함마디예브 파르훗존(28)은 야무지고 당차다.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어땠냐고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 노동자와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반겼다. 이런 반응은 한국 언론이 우즈베키스탄인을 이주노동자에만 초점을 두고 보도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거주 우즈베키스탄인은 6만9천여명, 그 중 이주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유학생도 1만명에 이른다.

파르훗존은 2014년 2월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경희대 어학당을 거치고 고려대학교 산업공학 학부를 마친 후 바로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고 2년 정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은 다음 석사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부를 마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외국계 직장으로 옮겼다. 동시에 파르훗존은 세계우즈베키스탄총연합회(WAYU) 한국사무소 부대표로도 열심히 활동한다.

## ‘실크로드의 허브’ 우즈베키스탄

우리는 1991년까지 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의미일까?

“‘우즈’는 ‘스스로’, ‘베크’는 ‘왕(주인)’, ‘스탄’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는 국가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파르훗존의 설명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의 교역을 연결해주는 관문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대의 알렉산드로스 대왕(B.C. 356~B.C. 323), 중세의 칭기즈칸(1162~1227), 근대의 러시아제국(1721~1917) 등 강대국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다.

“8세기엔 아랍 칼리파트(Arab Caliphate) 지배를 받아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10세기부터 중세까지 Samanid 왕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이슬람교와, 의학, 과학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티무르 제국이 세워져 중앙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 및 Caucasus(카브카스) 지역까지 퍼진 강국이 되었죠. 하지만 16세기에 티무르 제국이 3개 한국가로 나뉘어 있다가 19세기에는 러시아제국의 지배 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70년간 구소련의 공화국으로 있다가 1991년 독립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로 우즈베키스탄은 일찌기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이루었고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국토 면적 44만 7400km<sup>2</sup>, 인구 3,438만 2,077명, 우즈베크인이 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 밖의 타지크인(4.8%), 러시아인(2.3%), 카자흐



△ 2014년 한국 유학을 온 무함마디예브 파르훗존은 20대 우즈베키스탄 청년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그의 한국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족(2.5%), 타타르족(1.5%), 고려인(0.6%) 등 130개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사마르칸트는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이슬람 모스크 등 대담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는 역사도시가 되었고, 제정러시아 때부터 수도로 지정된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지금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핵심 우방국이 되었다.

## 4개 언어를 구사하다

파르훗존의 고향은 동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40만으로 네 번째 큰 도시인 페르가나주 페르가나시이다. 이곳은 티무르 왕조 멸망 후 우즈베크인이 설립한 삼한국 중 코칸트한국이 건국된 곳이다. 1510년 경 우즈베크인은 중앙아시아 일대에 정착하여 안나프루에는 부하라한국, 호라즘에는 히바한국, 페르가나에는 코칸트한국을 건국했다.

우즈베크인 파르훗존은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한다.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는 공용어로 쓰고 있고, 최근 들어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영어를 배우는 우즈베크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국제중학교를 다녀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고등학생 때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파르훗존이 4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 같다. /김용필



베트남 결혼이주 1세대 원옥금, 한국생활과 꿈

## 재한베트남 20만시대 ...“한 마을에서 한국인이 함께 하는 공동체 꿈꿔요”

“아시아 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한국인들과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커넥터(connector)가 될 거예요. 꿈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전 그런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그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이주민센터 ‘동행’ 사무실에서 만난 원옥금씨, 하고 싶은 일, 즉 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26여 년 간의 한국살이 대부분을 한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돕는 일을 해온 그녀는 이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아시아인들이 한국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녀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이 그런 세상이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원옥금은 누구?

베트남의 호치민시 출신인 원옥금씨는 1996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시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고된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

다. 문화차이는 컸다. 시집 오기 전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야 한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씀, 신신 당부를 지키기 위해 나름 부단히 노력했다. 한국어를 못해 시어머니 손에 이끌리어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9개월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한-베가족모임에 올라온 글을 번역하면서 베트남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2006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다. 법을 알아야 도울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재한 베트남인들을 돕는 그의 활동은 2014년 재한베트남공동체를 조직하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 왔다. 2015년부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도 했다. 2017년 베트남교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베트남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민간외교 활동도 전개했다.

2018년에는 이주민센터 ‘동행’을 설립, 대표를 맡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망원동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며

원옥금씨는 한 독서모임에서 영국의 ‘프롬마를 컴패션 프로젝트’에 관한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 그의 꿈을 구체화

하게 됐다고 한다. 이 책에 따르면 컴패션(compassion)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괴로움에 마음이 움직여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을 뜻한다. 즉, 누구도 홀로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상대를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원옥금씨는 지금 살고 있는 마포구를 마을공동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얼마전부터 망원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실정을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를 만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베트남 주변 국가들에서 온 이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예요.” 이들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은 지원단체가 없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늘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란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길 마음으로부터 응원한다. /곽승지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1세대인 원옥금, 26년차 한국생활과 재한베트남인을 위한 자생단체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 이야기를 들려준다.

“

EKW동포세계신문은 아시아발전재단 후원 및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2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는 취지로 국내 체류 아시아권 이주민 외국인 자생 공동체 활동과 리더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외국인,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상담사, 활동가를 만나 한국생활 이야기는 물론 그들의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

EKW 동포세계신문  
특/별/기/획  
연재보도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2021-2022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2

ADF 아시아발전재단 후원/공동기획 프로젝트

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하는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2 연재기사  
EKW(동포세계신문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목록입니다.

【2021년 9월】

- [1]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제2차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 [2][인터뷰]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김용국 원장...“한국문화는 아시아의 결정체”
- [3]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신부의 마석가구단지와 이주노동자 이야기
- [4]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다국어 상담사들에게 듣다..“자국민 한국생활 어떻게 니까?”
- [5] 미안마노동자복지센터, 이주노동운동 상징 ‘미누상’ 제2회 수상

【2021년 11월】

- [네팔 편] 제1회 아시아시선상을 수상한 네팔 이주민 작가 모헨까르끼- 이기주 부부 이야기
- [1]혜산 박두진 문학제 제1회 아시아시선상, 모헨 까르끼-이기주 부부
- [2]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한국동화를 네팔에 알린 모헨 까르끼
- [3] [모헨까르끼에게 듣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 네팔을 이해하자

[4] [한아찾] “네팔이 한국에 왔어요“

[일본 편] 수원시일본인모임을 이끄는 쓰보다 메구미

- [1] '일본에서 온 아내' 쓰보다 메구미의 행복한 자부심
- [2]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재수원 일본인 모임'과 쓰보다 메구미
- [3] '일본택' 쓰보다 메구미가 경험해본 한국인과 일본인

【2021년 12월】

[파키스탄 편] 재한파키스탄유학생회 회장 이크발 하피즈 와심(I. H. WASEEM)

- [1] 파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와심... 한국을 공부하며 자국민 상담사로 활동
- [2]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재한파키스탄유학생회와 와심 회장의 비전
- [3] 이태원 이슬람거리와 파키스탄 사람들

【2022년 1월】

[중국동포 편] 제21회 혜산 박두진문학제 제1회 아시아시선상을 수상한 전은주

- [1] '조선족 디아스포라' 시인 전은주...박두진 문학제 제1회 아시아시선상을 수상하다
- [2]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재한동포문학인연구회, 전은주의 '새로운 집짓기'
- [3] 재한 조선족 문학의 중심지 '대림동'을 보다

【2022년 2월】

[중국동포 편] 수원시 중국동포협회 회장 노순자

- [1] 한국생활 30년, 조선족의 고달픈 인생살이와 희망 찾기
- [2][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수원조선족동포협회, 진정한 일꾼
- [3]사회복지사에 도전하다..."소외된 조선족 노인문제에 관심“

[우즈베키스탄 편]우즈베크에서 온 청년 M. 파르호존

- [1] "한국에 다양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있어요“
- [2][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세계우즈베키스탄총연합회(WAYU), 한국대표처
- [3]“우즈베크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편] 결혼이주 1세대 원옥금

- [1]파란만장한 26년차 한국생활을 듣다
- [2][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재한베트남인 위한 자생단체 이주민센터 동행
- [3]망원동 주민자치위원 원옥금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북경동계올림픽개막식에 조선족 여성이 한복을 입고 나온 것을 두고 한국사회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언론도 ‘한복 논란’이라는 표제어를 붙이고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동포 사회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한복 논란을 중국동포 입장과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고자 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변대학교 김호웅 교수는 최근 “‘한복논란’ 유감’ (2022-02-10)이라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북경동계올림픽 축제에 중앙민족대학의 예쁜 조선족처녀가 한복을 입고 나가 여러 민족의 동창생들과 함께 거품의 오성붉은기를 들었습니다. 중국과 해외에 있는 조선족 형제자매들은 이 장면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터지게 환성을 질렀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기자와 정치인들은 “중국이 우리 한복을 훔쳐갔다. 동북공정의 일환이고 문화 침탈이다!”하고 난리를 칩니다. 너무나 치졸한 작태요, 약자 콤플렉스입니다.”

“이번 ‘한복논란’은 한국 언론과 정계, 특히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자들의 무식하고 옹졸하고 경박한 작태라고 봅니다.”

입장을 밝히면서 “왜냐하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김호웅 교수가 설명한 그 이유, 중국의 ‘다원일체의 중화민족공동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이었다.

“조선족은 중화의 문화신분과 백의겨레의 문화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민족공동체”라는 것이다.

김호웅 교수의 글은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

그러면서 김호웅 교수는 “(한국사회가) 문화의 다양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아량과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호웅 교수의 장문의 글에서 한 지적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과연 이번 ‘한복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2022. 2. 16(수)  
생각해봅시다

# 한복논란 두 가지 시선

## “유감” VS “오해”

**김호웅**  
연변대 교수(중국)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한국)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이번 ‘한복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호웅 교수가 지적하여 말하듯이 “정치적 야심을 가진 자들의 무식하고 옹졸하고 경박한 작태”에서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크게 호응을 하고 나왔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한국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원인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연구원 김용국 원장의 말을 들어보고자 한다.

김용국 원장 : “중국이 조선족이 자신들의 민족으로,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인정해서 중국화 시켰잖아요. 분명히 조선족이 있으니깐 한복이 있겠죠, 조선족의 민족의상이...(북경동계올림픽 개막식행사에서) 55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들의 복장을 다 보여주겠다 라고 했다면 큰 물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그 장면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면 중국이 55개 소수민족 의상이 다 등장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랬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복이 한국인 눈에 띄었겠죠,

기자: 특별한 설명은 없었어요, 영상만.

김용국 원장: “그렇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봐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속담이 있듯이 이런 것처럼 중국이 한국에 보여왔던 아시아에 보여왔던 정책을 본다면 마냥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기자: 문화공정?

김용국 원장 : “그렇죠,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단군신화, 김치논란,” “한복의 등장이 마뜩찮죠. 이게 뭐지, 어떤 생각으로 그랬까? 그런 의심?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야...”

기자: 조선족 전통의상, 치마, 저고리, 한복(韓服)이라고도 해요. 합복(韓服)과 한포(漢服)의 차이점, 한복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옷이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알 수 있죠, 조선복장, 연변치마, 저고리..라고 부르는데...조선족동포들은 이를 한복이라고 부른다. 중국 한족의 복장은 한포(漢服)라고 한다.

김용국 원장: “이게 만약 오해라면 오해의 빌미를 중국이 제공했지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자: 조선족 입장에서 왜 문제

냐? 이해하기 어렵다.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나가야지 중국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반응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인은 중국측만 보고 문화공정이라고 하고..그런 오해가 조선족에 대해 우리와 한민족이라 보지 않는 한국인들의 인식 결여가 문제 아닌가?

김용국 원장: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조선족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 중국의 조선족과 한민족이 복색이 같아요. 전통의 복색이...”

기자: 조선족이 중국에서 한복 입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한국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비교해서 미국에서 미국사람이 한복을 입으면 좋아한다.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냐고 말합니다.

김용국 원장: “그게 문화적인 것일 거예요, 그것은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다. 우리는 한복에 대한 문화적 프라이드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되었어요, 그들을 상징하는 것은 민족적 구성보다는 신식문물로 이루어진 나라이니까? 민족색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등가로 비교할 것은 아니다.”

중국동포와 함께 희망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동포세계신문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금껏 동포세계신문은 특별한 수익사업 없이 광고료만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드러하듯이 광고료만으로는 신문발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이신문을 구독해 보는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신문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애독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신문이 독자의 힘으로 발행되고 유지되어 나가 진정으로 중국동포와 함께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 구독료 납부로 동포세계신문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신문 1년 구독료 5만원으로 동포세계신문 후원독자가 되어주세요

동포세계신문 후원계좌: 이코리아월드(주) 하나은행 355-910008-00904  
농협 301-90123-5917-31  
\* 1년 구독료 납부로 후원에 동참해주신 분은 010-5552-8120 번으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 등을 남겨주세요,

ekw 동포세계신문

紙面 신문으로 보시면 뉴스의 느낌이 다릅니다

신문지면 보러가기

동포세계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고충상담 기사 제보를 환영합니다  
제보전화 02-868-2590, ekw2011@nate.com





# 중국동포 전문 혼인광고



재혼, 초혼, 자녀 혼인 문제로 고민하는  
중국동포를 위해 마련한  
동포세계신문 전문 혼인 광고입니다.

## 02-863-2589



혼인광고  
온라인판

동포세계신문 결혼정보는 결혼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게재해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 동포세계신문 혼인광고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 동포세계신문 온라인 사이트에 바로 게재
- 동포세계신문 종이신문(현재 매월 1회) 게재



혼인광고  
상세안내

21-05-16

▶[소개] 남 66년생, 키 1미터64, 이혼, 아이 없음, 한국 생활 12년, 인물 체격 보통이며 술담배 하지 않음, 성격은 온화하며 정직하고 경제기초가 있고, 현재 일용직 일을 함.  
▶상대방에 대한 요구:나이 54세 이하 인물, 체격이 보통이며 마음씨가 착한 녀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 010 8193 8288

21-05-16

▶소개: 남, 38세, 키 170cm, 미혼, 고졸, 보기 좋은 인물 체격에 성실하고 온순하며 안정적이고, 현재 영주권, 중국에 아파트 있음  
▶요구: 성실하고 가정을 중히 여기는 조선족 여성을 찾습니다

☎ 010-8607-8863

▶[소개] 남:71년생 키165cm 순수한 인물 체격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는 남성. 독립의식 강함  
▶상대방에 대한 요구:키 156cm이상 외모 는 단정하고 깨끗하신 분. 한국에서 같이 식당을 하시려는 분.

☎ 010-4418-2201

▶[소개]남, 83년생, 초혼, 키 173cm, 고향 길림, 보기좋은 인물체격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참된 수양을 가진 남자.현재 영주권 소유자이며 모회사에서 잘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요구:보통 인물체격에 마음씨 착하고 알뜰한 여성분을 찾습니다.

☎ 010-5669-3788

배우자를 찾습니다

▶[소개] 남, 52세 키 1.65cm 이혼. 아이 없음. 한국 생활 8년차. 인물 체격 보통이며 술담배와 인연이 없음. 성격이 온화하며 정직하며 경제 기초가 있고 현재 건설업에서 일함  
▶상대방에 대한 요구: 나이 40~47세 인물 체격이 보통이며 마음 착한 조선족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 010-8193-8288

18-05-24

▶[소개]남: 58세 키 170 고향 도문 한국 생활 15년 생활력 강하고 보기 좋은 인물 체격에 가정 부담이 없음  
▶상대방에 대한 요구:보기 좋은 인물체격에 알뜰하고 마음씨 고운 조선족 여성을 찾습니다.

☎ 010-8078-7275

▶[소개] 남: 75년생 키165. 신체 건강하고 도량이 넓은며 한국생활 10년 현재 기술 용접 술 담배 안하며 월 400~500만 F4비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요구: 신체 건강하고 사리 밝고 가정을 중히여기는 마음씨 착한 사람 찾고있습니다.

☎ 010-8338-3813

▶[소개]남 78년생, 고향 연길. 보기 좋은 인물체격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많으며 참된 가정 수양을 가진 남자입니다.. 가정 부담이 없고 경제적 여유 있습니다. (연길에 집도 있음)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33세 이상 155cm 이상인 마음씨 착하고 연길에서 함께 장사하며 살림을 꾸려나갈수 있는 조선족여성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 010-9398-8586

▶[소개] 남:72년생 키:169cm 고졸 초혼 깔끔하고 활발한 성격에 참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한국생활 12년차 F4비자 경기도 모회사원으로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요구:보통 인물체격에 살림알뜰하고 마음씨고운 조선족 형제6형제인데 모두 외국에있다보니 이왕이면 친척이많은분 찾고싶습니다.

☎ 010-9231-0750

▶[소개]남:37세 /키172cm/고졸졸업 보기 좋은 인물체격에 유모아적이며 성격이 좋고 사고능력이 있음(현재한국에 전세집있구요.연길에도 이파트도있음) 현재한국 양 부모님하고 함께 체류하고 있음  
▶상대방에 대한 요구: 27세이상.키155cm 이상. 보기좋은 인물체격, 성격이 활발하고 사리 밝으며 가정을 중히여기고 정파 다운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조선족여성 분 찾습니다.

☎ 010-5571-5578

[22-3-16]

▶[소개] 남 59세 고향은한국 보기 좋은 인물 체격에 성실 하고 건간하고 현재 청주에서 건축 자재 생산업체에서 근무 중  
▶상대방 요구사항: 착하고 성실하고 알뜰한 40대 후반이나 50초반의 건강하고 용모단정하며 가정에충실하고 영원히 함께 살수있는 여성을 원합니다.

☎ 010-7697-3370

[20-06-15]

▶[소개] 남, 38세, 키 170cm, 미혼, 고졸, 보기 좋은 인물 체격에 성실하고 온순하며 안정적이고, 현재 영주권, 중국에 아파트 있음  
▶[상대방에 대한 요구] 성실하고 가정을 중히 여기는 조선족 여성을 찾습니다.

☎ 010-8607-8863

[21-11-16]

▶[소개] 미혼, 남, 74년생, 연변, 키 177CM, 북경 일본어 학원 공부, 제조업 F4비자, 술 담배 많이 하지 않고 성실 온화하고 현재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납품기사로 근무하고 있음  
▶[상대방에 대한 요구] 한국에서 마음잡고 함께 살아갈 여성을 찾습니다.

☎ 010-2823-4317

18-08-24

▶[소개] [재혼] 59세, 남, F-4, 고향 연변,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버스 운전을 하다가 현재 레미콘 운전을 하고 있음. 월 300만원 좌우 수입, 술 담배 안하고 부담 없고 성실한 남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요구] 정직, 성실, 건강, 수양 있고 착하며 두 손 잡고 둘만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분, 원숭이 띠 혹은 말띠면 좋음, 연변 여성을 선호합니다.

☎ 010-3993-6681

19-01-01

▶[소개] 남 84년생 쥐띠, 대학졸업, 키 175, 고향 훈춘, 보기 좋은 인물 체격, 성실하며 책임감 있고 부지런함, 술 담배 안하고 고향에 살림집도 있고 량부모 퇴직금 있어 부담 없음.  
▶상대방에 대한 요구:인물은 수수하고 용모 단정하며 마음씨 착하고 가정살림을 잘 하는 여성을 찾습니다.

☎ 010-8625-6612

▶[소개]남 43세 소띠 키 163cm 고향 심양/부모형제 모두 한국에있음 인물체격 좋고 마음씨 고우며 현재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 하고 있고 영주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요구: 키 155cm이상 마음씨좋고 가정교양있는 조선족(한족가능)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여성분을 찾습니다.

☎ 010-7725-0508

▶[소개] 남 /35세/키170cm/고향 훈춘 대학 졸업 보기좋은 인물체격 정직하고 성실하 며 침착하고 자립능력 책임심 강한 사나이  
▶상대방에 대한 요구 : 키156cm이상 인물은 수수해도 맘씨 착하고 수양 있으며 사람 됨됨 이가 솔직하고 가정과 감정을 중히 여기며 인 생길 끝까지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조선족 여성 찾습니다.

☎ 010-8019-6428

20-06-15

▶[소개] 남: 65년생, 고향 심양, 보기 좋은 인물 체격에 마음씨 착하고 키 169. 현재 한국 거주  
▶[상대방에 대한 요구] 마음이 선량하고 생활력이 강하고.정직하고.건강하고 성실한 평생 함께 살 수있는 조선족 여성을(58세이하) 찾습니다.

☎ 010-2608-2675

[20-11-15]

▶[소개] 남:42 똥생.애 없음..건강하고 보통 인물체격~ 서울에서 기술직하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요구] 보통 인물 체격에 마음씨 착한 여성을 찾습니다.(국적, 비차, 민족,상관없음)자세한 사항 합의~

위챗:k01057025518

[21-07-16]

▶[소개] 남, 78년생, 키170, 보기 좋은 외모에 부지런한 성격, 고향에 아파트 두 채 있고 경제적 여유 있음. 한국에는 전세집 살고 있음.

▶[상대방에 대한 요구] : 키155 이상에 건강하고 배려심있는 여자분찾아요

☎ 010-5117-9985

▶[소개] 여, 33세, 조선족, 키 162cm, 전문대 졸, F-4 한국거주 현재 면세점 근무, 외모 좋음

▶상대방에 대한요구: 성격이 포용적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 술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 나이는 33세~38세 사이, 키는 168cm이상인 남자. 전문대 이상 졸, 조선족 또는 한국인 남성

☎010-7574-8998

▶[소개] 남 36세 키167, 학력 고졸, 용모 단정하고 마음씨 착하고 정직함. 현재 회사에 출근함. 중국에 살집 있음. 집에는 엄마, 아빠, 남동생 있고, 부모들은 퇴직금 있어서 경제 부담은 없음.  
▶상대방에 대한요구: 30세 부터 35세 여성으로 알뜰하고 마음씨 착하고 책임성 있는 분

☎ 010-8494-5240

10

▶[소개] 남 :1970년생 키 170cm 석사졸업 이혼 아이없고 아무부담없음 영수권(서울거주) 고향 연길에 아파트2채 한국에 전세방있음.심신이 건강하소 겸손하며 리성적임  
▶상대방에 대한 요구: 40세이하 키150cm이상 생육능력있는 건강하고 성실한 끝까지 함께 할 여성분을 찾습니다.

☎ 010-5516-6661

### 중국동포 전문 동포세계신문 혼인광고 광고문의

☎ 02-863-2589  
ekw2011@nate.com





■ 문민단상 "이 책을 읽고"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30대 재미한인 젊은 작가 전후석 이 던진 질문이다. 그가 쓴 <당신의 수식어> 책표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숲 같기도 하고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아 알른거린다.  
<당신의 수식어>는 작가 본인이 디아스포라이면서 또 다른 여러 그룹의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대해 언급한 책이다. 전후석 작가는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다큐 영화까지 만들었다(영화<헤로니모>).  
디아스포라 콤플렉스에 젖어 있었던 필자는 젊은 작가가 어떻게 디아스포라에 대해 썼나 궁금해서 책을 펼쳐들었다.  
저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중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재미있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농담으로 저자의 이름을 앞뒤돌(필자의 이름이 전후석, 前后石 앞 전, 뒤 후, 돌 석으로 임의로 해석) 이라고 불렀다.  
전후석 작가는 여러 나라를 종횡무진하였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와서 초중고 교육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대학 공부를 하였다.  
대학 마치고 중국 연변에 가서 인턴 그리고 쿠바, 브라질, 요르단, 러시아...  
이 와중에 재미한인, 쿠바 한인, 중국 조선족, 브라질 한인, 러시아 고려인, 입양아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그리고 한국으로 귀환한 탈북자,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 등 다양한 디아스포라를 만나고 인터뷰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이들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정체성 혼

란을 겪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봤다.  
전후석은 헤로니모 선생의 삶을 통해 이중, 다중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정리되고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고 한다. 헤로니모는 100퍼센트 쿠바인이자 100퍼센트 한인, 그 이상의 세계 시민성을 갖췄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태어나 출신성분이 좋지 않아 태아 때부터 투쟁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고향이 한국이란 이유로 주자파走資派 누명이 우리 가족에 씌워졌다. 아버지는 물론 엄마 뱃속에 있던 나까지 투쟁의 대상이 되어 끌려 다녔다고 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나에게 나의 뿌리를 알게 해 줬고 내가 한국에 와야 하는 당위성을 알려주었다. 나는 광복 50주년 되던 해에 한국에 왔다. 당연히 와야 할 곳에 왔다고 생각했던 꿈들이 한국에 온 후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나 개인의 정체성보다 '한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더 혼란스러웠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았다. 한국에 와서 다시 대학 다닐 때 교양과목 강사였던 탁석산 선생이 쓴 <한국의 정체성>을 보면 한국인들조차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명쾌한 대답이 없는 것 같다.  
전후석이 쓴 <당신의 수식어>를

읽고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본다. 한국은 더 이상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다양한 디아스포라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다. 중국의 조선족, 미국의 코리아, 일본의 재일코리아, 러시아의 고려인, 유럽의 입양아 그리고 국내로 귀환한 중국동포, 고려인, 탈북자, 난민...를 모두 포용한 집합체이다.  
<당신의 수식어> 저자는 더 큰 나라를 만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떠난 디아스포라라면 나는 돌아온 디아스포라이다.  
돌아와 내가 첫번째로 해야 할 과제는 동질성 회복이다. 그리고 더 나은 한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디아스포라 시인 박춘혁이 직접 작시, 작곡하고 부른 노래를 들어 본다.  
...  
우리는 바람에 흩날린 작은 씨앗  
언젠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리  
우리는 파도에 부서진 모진 생명  
언젠가 바다에서 다시 만나리...

우주의 영원함 속에 찰나같이 스쳐 지나가는 삶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일 것이다.

글/ 문민서울국제학원 문민 원장

1990년 중국 흑룡강성 오상조선족사범학교 졸업 후 칠대하시 조선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국 귀화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2014년부터 서울국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귀화시험 한 권으로 합격하기' 등이 있다.

재외동포재단 소식 2022.03. 13

“모국 유학 차세대 동포 장학생 선발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모국 대학으로 유학하려는 재외 동포 차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초청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수한 동포 인재의 유학을 지원해 동포사회는 물론 거주국과 모국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올해는 학사 과정 25명, 석·박사 과정 75명 등 100명을 선발한다.

동포사회 발전과 모국에 기여할 자질을 갖춘 성적 우수자로 2022년도 9월 학기 또는 2023년 3월 학기에 국내 대학(원) 입학 예정자가 대상이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유공동포 후손,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 후손, 경제 여건이 곤란한 사람, 입양 동포와 그 자녀, 한국어 능력 우수자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장학생에게는 학비 일부와 매달 95만원의 생활비가 제공된다. 이밖에 최초 입국과 최종 출국 항공료, 최초 소요 경비, 한국어 연수, 논문 인쇄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역사문화 체험과 멘토링·유학생 네트워크 활동 기회도 제공한다.

4월 3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 또는 거주지 공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 말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는 ☎82-64-786-0276/0278  
이메일 scholarship@okf.or.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우크라이나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가족에 대한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시행 알림

‘22. 3. 10.(목)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간소화 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조치는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등 제출서류 면제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등이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와 함께 하는  
서울시 동포종합지원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00  
운영일 : 일요일, 월~금요일

전문상담

변호사(수·금·일요일)  
노무사(화·목요일)  
상담시간 : 14시~17시  
사전상담 및 예약 필수

생활상담

임금채불, 부당해고 등 노무  
사증·영주·귀화 등 출입국  
취업교육, 건설업취업인정증  
산업재해, 임대차 분쟁 등

교육/문화

한국어·컴퓨터·미디어 교육  
외국인주민 민주시민교육  
내·외국인주민 문화동반자교실  
사회통합·조기적응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내·외국인주민 교류 행사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방역  
서남권 정책토론회

Southwest Seoul Global Center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西南首尔国际中心

http://www.swsgc.co.kr  
微信号 : SW-SGC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0(대림3동 604-30)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2.3번 출구 → 마을버스(영등포12 13번) → 현대3차 성원아파트 하차



## ■ 핫뉴스!!!

## "무시당해 불질렀다"…강원 산불 방화 60대 구속영장

지난 2000년 강원 고성. 삼척 산불 이후 22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강원도 산불이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해 화끈에 저질러진 방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경제>는 지난 3월 6일,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불을 낸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

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해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의 모친인 B(86·여)씨는 산불이 발생한 당일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 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 3.9대선 이후

尹당선인, 4강외교 기조전환 예고…  
美동맹·日협력·中상호존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1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 재건, 일본과 갈등 현안 해결을 통한 관계 개선,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 양국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 북한에 치우친 외교를 한 탓에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크리스토퍼 텔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협력 분야도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날 면담에서도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일본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심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에서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책임 있는 세계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기를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와도 맥이 닿는다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윤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 균형 외교를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국을 더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과 갈등 봉합과 정에서 취한 '3불' 정책(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던 후보 시절과 달리 이날 면담에서는 심 대사를 "늘 친근한 느낌"이라고 반기면서 "한중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사설

“중국동포 유권자는 침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하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선은 소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선거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 대선 결과가 내가 선택한 후보가 되었든 아니되었든 유권자로 참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3월 4, 5일 사전투표에서 36.9%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본투표율까지 합하면 77.1%를 기록했다. 그 결과 24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치열한 선거전이었다.

중국동포 유권자들, 행정안전부에 통계에 의하면 중국국적에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은 대략 14만명. 조선족의 경우만 보면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재외국민 유권자는 16만명 넘게 투표를 하였다. 재한 중국동포 유권자와 재외국민 유권자의 표를 합한 수 범위내에서 대통령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

750만 재외동포, 그중 국내 체류하는 100만 동포들, 상당수가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재외동포에 대한 정치권이 관심이 저조하고 동포로서의 권익을 찾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현재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목적도 선거권이 있나 없냐를 떠나서 모국사회가 국가지도자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재한동포와 재외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가족 중에 외국적 동포들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동포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유권자들이다. 한국사회에서 동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침병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는 6월 1일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치러진다.

이때는 영주자격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한 중국동포 중에는 영주자격자가 11만명이 넘는다.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광진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수원 팔달구, 부천시에서는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유권자 군을 이루고 있다. 나의 소중한 한 표로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투표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서울 경기권 내 대학병원 1인실 간병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근로장려금 지급, 다양한 복지혜택

## 매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수입을 보장

# 최상의 근무조건 간병인 모집 안내

○모집대상: 1957년 이후 출생자/H-2, F-4 가능/유경험자 우대

○문의전화: 02-863-2589, 010-4036-2589 동포세계신문이 간병인 전문 관리업체와 실시하는 특별사업입니다

**협회비 없음, 유니폼 무료 제공, 근로계약 체결(월급제)**  
매월 최소 20일 이상 근무시 매월 안정적 수입보장  
일감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대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가 제도**

- 8일 미만 환자일 경우: 간병 업무 종료 시 1일 무급 휴가 제공

- 8일 이상 환자일 경우: 6일 근무마다 1일 유급 휴가 제공

간병인 선생님이 현물 경우 유급 휴무일에 근무 가능하여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 지급

**평균직 면환(2022년 7월 이후)**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특전]**

6개월간 식사비 지원금 60만원

6개월 만근 근로장려금 60만원





[알림] EKW 동포세계신문 종이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구독료와 광고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격월(홀수달 16일 자로 발행)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신문 [www.ekw.co.kr](http://www.ekw.co.kr) / 유튜브방송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방송은 매일 기사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본지 기사마다 QR코드를 게재하였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 바로 유튜브방송으로 연결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구독자 1.93만명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아요" 👍 "구독" 버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제보: 02-868-2590, [ekw2011@naver.com](mailto:ekw2011@naver.com)

이달의 조회수가 많았던 방송

2022. 2. 5(토)  
정책설명

**H-2/F-4/F-5  
동포체류정책  
업무지침**

동포 체류정책 업무지침 설명(주요내용 중심으로)...C-3-8, H-2, F-4, F-5 체류정책 조회수 25,902회 2022. 2. 5.

2022. 1. 26(수)  
반론합니다

**탈북민 유튜버  
또, 중국동포 공격?**

정성산TV의 허무맹랑한 주장 3가지

"또 중국동포 공격하나?" ...[반론합니다] 정성산TV의 허무맹랑한 3가지 주장에 대해서.. 조회수 22,384회 2022. 1. 26.

2022. 2. 3(목)  
집중분석

**윤석열 후보 주장에  
반박 보도한 한겨레**

**외국인 건강보험  
尹 '술가락론' 틀렸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한  
중국동포 사례

"혜택 보다 불리함 더 많다"..외국인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술가락론' 없다는尹 주장에 한겨레신문 반박보도 ...조회수 13,291회 2022. 2. 3.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김도균 제주한라대 교수**

**“동포차별/취업제한  
충분히 없앨 수 있다”**

**법무부 동포정책팀 본격 가동!!**

희소식!!! 법무부 13년만에 '외국적동포 정책전담팀' 재가동...김도균 제주한라대 교수 "필요하고 더 늘려야""동포정책 후퇴 아닌 전진 기대" 조회수 17,121회 2022. 3. 4.

2022. 2. 11(금)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 간담회  
“국내 체류 동포가 중요하다”  
“재외동포기본법 필요하다”  
시민사회/동포단체 ...제정 촉구 활동 본격화**

"국내 체류 동포가 중요하다" ..국회의원 동포정책 간담회...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조회수 13,877회 2022. 2. 11.

2022. 2. 6(일)  
오늘의뉴스

**2022 북경동계올림픽[2부]  
조선족의 한복  
뭐가 문제야?**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오늘의뉴스[2/6] 북경동계올림픽과 한복 논란을 보며[제2부] 조회수 12,331회 2022. 2. 6.





중국동포 여러분들의 사랑방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이소연과 함께 하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연출 김경희 작가 김경순 진행 이소연)는 북방지역 동포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문화와 생활정보를 제공해 민족공동체 의식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동포 사랑방입니다. 방송시간대는 월-일 07:00 - 07:58

방송되며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로 지난 방송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프로, 매주 수요일 김용필 동포 세계신문 대표가 출연하여 중국동포 편지사연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인, 외국인보다 중국동포·탈북민에 더 부정적이다” 라는 한국일보 기사를 읽고

한국일보는 지난 2월 23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이주민 가운데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이들의 인구수를 훨씬 부풀려 추정하고, 소득과 학력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것이다.”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2월 16일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공동저자 최정윤 김성훈 최승주)에 따른 내용이다.

한국일보가 소개한 논문내용을 보면, 중국동포는 국내 이주민 집단 중 일부인데도 중국동포 인구가 전체 이주민보다도 많다고 비논리적으로 과대 추정하고 있다는 점, 중국동포와 탈북민의 학력 수준이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 범죄율 추정치에서도 중국·북한 동

포에 대한 편견이 확인된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일보 기사만 보면 연구방식이 난해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내국인이 중국동포, 탈북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논문을 작성한 연구팀은 “이런 현상의 근본 요인으로 교류 부족을 꼽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중국동포와의 교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 탈북민은 9.2%에 각각 그쳤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그렇다면 기사 제목은 “한국인, 중국동포·탈북민 실상 잘 모르거나 부풀려알고 있다” 정도로 해야되지 않았을까.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의 '공공정책 역량강화 연구지원'을 받은 서울대 및 싱가포르경영대 소속 저자들이 국내 성인 남녀 4,000명을 설문조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중국동포들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 상봉과 이별

글/ 최예라(여, 10대), 중국 길림성 훈춘시 제4소학교4학년

(최예라) 아빠~~

인천 공항에서 아빠 품에 안겨 환성을 지르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오늘은 떠나야 한다. 나는 아빠 품에 안긴 채 아빠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다.

(최예라)아빠, 아빠도 함께 중국 가자, 응?

(아빠) 안돼, 아빠 여기서 출근해야 돼.

이제 겨울 방학에 예라가 또 아빠한테로 오면 되잖아?

(엄마) 예라야, 사람들 다 너를 지켜보고 있잖아?

빨리 아빠 손 놔야지.

엄마의 불호령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엄마 따라 비행기에 올랐다. 자리를 찾아 앉은 후 옆에 앉은 엄마를 곁눈질 해보았더니 엄마의 눈시울도 축축이 젖어 있었다. 엄마도 아빠와 헤어지는 게 아쉬운 모양이다. 나는 못 본 체 짐짓 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국에서 보냈던 한 달 동안의 일들이 동화 속 이야기마냥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할머니가 보내준 된장으로 찌개 끓여놓고 세 식구가 모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날 저녁식사, 그게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이었다. 찌개 맛있게 끓이는 마누라가 독후감경색에서 금 타는 딸보다 더 좋다며 나를 약 올리던 아빠

(엄마) 거짓말인줄 알지만 기분이 좋네요.

간드러지게 웃던 엄마,

우리는 서울의 자그마한 월셋방에서 오랜만에 세 식구가 오붓하게 그렇듯 행복한 저녁시간을 보냈다.

(엄마) 예라야, 한국에서 많은 곳에 다니며 놀았는데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니?

이제 돌아가면 작문 써야지?

(최예라) 엄마, 그 지하철 7호선 타고

잠실에서 내리던 데가 무슨 놀이터였어?

(엄마) 오 \_\_롯데월드!”

한국의 놀이터가 서비스도 좋고

엄청 재미있더라. 그렇지?”

엄마 말에 나는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한국의 놀이터가 재미있어서였던지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즐거웠던지 그날 우리 세 식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비행기는 연길 상공에 이르렀다. 비행기 유리창으로 연길거리가 차츰차츰 아득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바야흐로 비행기는 하늘과 이별하고 땅과 상봉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에게만 상봉과 이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도 날마다 상봉과 이별을 반복하며 하늘과 땅 사이를 오고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버리지 못한 채 연길공항을 빠져나와 훈춘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아빠와 또 만날 수 있게...

\* 위글은 KBS한민족방송/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수요일의 행복우체통(3월 2일 방송)에 소개된 글입니다.

동포세계신문 EKWtv

본지는 신문 및 잡지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구로, 라00103 신고일 2011.6.14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7길 13-7, 3F

T. 02)868-2590 / 02)863-2589 F. 02)861-2589

www.ekw.co.kr 이메일: ekw2011@nate.com



• 발행처:이코리아월드(주)(구 동포세계)  
• 대표겸 편집국장: 김용필•발행인/편집인: 허광옥

• 편집국 02-868-2590 / 광고국 02-863-2589  
• 구독료 5만원/1년

• 농협 301-0123-5917-31 • 하나은행 355-910008-00904  
• 우리은행 1005-802-803887



김세광 백두농원 대표·한국오상민락촌 촌장

## “오상쌀맛 나요” ... 한국산 도화향미 첫 수확

중국 오상시 민락조선족향 출신 김세광 씨가 고향의 오상쌀과 한국의 당진 쌀을 교배해 생산한 쌀을 보급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김세광씨는 10여년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백두산 관광을 위주로 한 여행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맞고 여행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말게 되었다. 그 후속책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텃밭부지를 마련해 백두농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매년 5월경이면 아카시아꽃과 밤꽃을 채취하기 위한 밀봉군이 찾아온다. 백두농원에서 채취된 천연산 자연 꿀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업도 펼쳤다.

흑룡강성 오상시 민락조선족향이 고향인 김세광 씨는 여행업을 하면서 알게 된 한국인 지인과 함께 오상쌀을 한국에서 생산해 보급해 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오상쌀은 중국에서도 으뜸으로 알아주는 쌀이고 그 밥맛이 최고이다.

김씨의 말로는 누군가가 7, 8년전부터도 오상쌀 법씨를 가져다가 한국에 심어 보았다고 한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 당진에서 나는 쌀과 오상쌀을 교배해 생산하는데 성공을 하고 2021년 첫 수확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당진 농가 6가구가 이 쌀을 직접 생산하였고 김세광 씨는 고향사람들과 지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다. 이

름을 오상에서 생산되는 쌀 상표인 도화향미(稻花香米)라 붙였다. 한국산 도화향미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첫 수확을 보게 된 것이다.

반응은 매우 좋았다. 밥맛도 특등급! 중국 고향사람들에게 먹어보라 보급하니 호응도 아주 좋았고,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선물용으로도 여러 포대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김세광씨는 자신있게 말한다. 중국에서 조선족동포들이 생산하는 오상쌀과 한국의 당진쌀이 결혼해 낳게 된 ‘한국산 도화향미’, 쌀도 쌀이지만 상징성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김용필 기자



△ 김세광 백두농원 대표가 10kg 짜리 도화향미 쌀포대를 들어보이고 있다.



“구로시장 內 동북특산에서  
오상쌀맛 도화향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02-863-258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2길 17-10 동북특산



## 동포세계신문사 고충처리 010-4036-2589

● 미성년 자녀들이 불법체류중인 부모(부모, 자녀 불법체류)  
★ 코로나로 한국에 입국 못 하는 가족 초청해 드립니다.  
★출입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동포 분 상담환영

★체류기간 연장할 때 소득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H-2, 3년 만기자 1년 10개월 연장 하세요.  
※ 코로나로 입국 못하고 있는 가족 사증 발급

- 음주, 폭행 등으로 연장, 변경 못 하시는 분
- 강제추방 되어 한국에 못 오시는 분
- 영주권불허, 국적불허, 연장불허 되신 분
- C-3-8 비자에서 체류자격 변경
- F-4 변경 (자격증 문제 상담)

- 공항에서 입국 거부 된 사람 (입국규제자 특별상담)
- 국적, 영주권신청 (시험면제 및 합격 책임)
- 산재, 임금체불, 퇴직금 못 받으신분
- 중국 각종 공증인증, 위탁서, 유전자검사
- 비자신청대행(H-2, F-4, C-3-8,)
- H-2, F-4 배우자초청 (한족 포함)
- 국제결혼비자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연장, 출입국방문예약신청

동포들의 길잡이

# “동 포 세 계 신 문 사”

고충처리 전담전화 : 010-4036-2589